**지난 1년을 돌아보며**

22.03.13 (일) 성영훈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벌써 올 해도 3월의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감사제목을 적어보게 됩니다.

최근에 생각이 된 것은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용납해주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여전히 죄 된 모습도 많은 사람이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용납해주시고, 또 가장 더러운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평생을 함께하심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를 용납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사도로 삼으셔서 바울이 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주님의 용납하심과 같이 또 팀의 형제들과 아파트의 형제들이 저를 용납해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며, 저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닮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어려움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제가 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됩니다. 혼자서는 참으로 약하여 주님을 떠나서 살았을 사람인데, 귀한 교제가 있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모든 문제와 필요들이 교제 안에서 채움 받게 되었고, 풍성한 사랑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가 되며, 특별히 작년과 올해 3월부터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영육간에 쉼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약속을 주시고, 사람을 돕는 경험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건휘를 도우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는 삶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28:13-15) (사54:1-3)의 꿈을 주시고, 최근에는 (사58:10-12)의 약속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진학사로 이직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월이 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어느새 저도 그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한해동안 크고 작은 일과 사건 사고 가운데서 저를 보호해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과 그간 회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따금 믿음의 시도를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짐에 따라 저의 관심도, 시간사용도 세상일로 분주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복음이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어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한 (창28:13-15)을 주장하면서 이 캠퍼스에서 사람을 얻는 삶을 살고, 그 동기 가운데 매일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